

일본 노유복합시설의 세대간 교류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Space Planning of Age-integrated Facilities in Japan

박혜선*
Park, Hae-Sun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and the concept of age-integrated facilities where elderly persons' facilities and children's facilities have been built in the same plot or building or established adjacent to each other. And also it examined the concept, necessity, effects, and kinds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Ten age-integrated facilities in Japan, where it is reported that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are now being implemented, were selected and visited for surveys. This study implemented interviews with staff members and analyses of the drawings of the facilities to grasp the present state of age-integrated facilities and their plan types, etc. Through analyses of relationships between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and the spaces in which these take place, this study discusses guidelines for space arrangement and for developing interaction space plans for age-integrated facilities that would facilitate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키워드 : 노유복합시설, 세대간 교류, 저출산·고령화

Key words : Age-integrated Facilities,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low-birth and ag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고령기를 맞이하고 노인문제를 사회 전체가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은 노인복지서비스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최근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복지시설들을 함께 건설하거나 다른 시설과 병설하는 복합화의 사례, 즉 노인복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¹⁾.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을 축소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노인시설로 전환하여 두 시설을 복합화하는 「노유복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노유복합시설, 즉 노인시설과 보육 및 아동시설과의 복합을 통해서 유아들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며, 노인들에게는 자칫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노인시설 내의 활동에 활력을 부여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등, 두 세대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장점들이 보고되고 있다.²⁾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을 복합화 하는 데는 이용자 가족 입장에서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선례가 많지 않고, 운영자 측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선뜻 복합화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 그러나 복합복지시설 계획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간배치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해서 「세대간 교류」의 역할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충남 연기군 일대에 건립중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복지시설을 복합복지센터의 형태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의 핵심사항이 각 복지시설들을 어떻게 복합화하는가 라는 것이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보건복지시설, 여성시설 등 많은 복지시설들을 각 복지시설 사용자의 특성에 맞추면서 사용자 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닝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중점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³⁾ 현재 국내에는 각각의 복지시설계획에 관한

* 정희원,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부교수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박혜선, 오은진, 「일본 고령자복합시설과 테이서비스센터의 복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권 4호, 2007. 08, pp.62-71

2) 박혜선, 「노인복합시설 세대간 교류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복합복지시

연구에 대해서는 축적된 자료가 있으나 복합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박혜선(2008)은 노인복합시설을 국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세대간 교류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나, 시설 건립부터 두 시설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건축계획이 이루어진 시설이 거의 없었으므로 건축적 복합화에 대한 발전적인 자료의 제시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세대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노유복합시설을 방문·조사하여 그 분석을 통해 금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국내의 노유복합시설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유복합시설이 출현하게 된 배경 및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유복합시설에서의 상호교류, 즉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약화로 인해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세대간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세대간 교류의 개념,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 일본의 선진사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시설 이용자의 생활거점을 완만하게 연결시켜 자연적인 만남이 생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합시설 내의 공간배치 및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주목하였다. 노유복합시설 운영자에 대한 인터뷰조사와 시설도면 분석을 통하여 일본 노유복합시설의 세대간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유복합시설의 평면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세대간 교류와 교류공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여, 세대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노유복합시설의 공간배치 및 교류공간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방법

노유복합시설의 세대간 교류와 교류공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노인과 유아의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거나 세대간 교류공간이 계획되어 있는 곳을 먼저 선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건물에서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과 교류공간과의 상관관계,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의 관계를 추적 조사하여 노유복합시설 복합화를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나, 서두에서 밝혔듯이 국내에서는 조사대상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유복합시설 및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이전부터 계획되고 실시되고 있는 일본에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시설은 현재 세대간 교류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되는 시설⁴⁾ 10개소를 선별하여 방문·조사하였다. 시설 운영자나 직원들과의 인터뷰와 입수된 도

면 등을 통해서 노유복합시설의 현황과 평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시설방문은 2007년 9월, 2008년 7월, 2009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유복합시설의 배경 및 개념

「노유복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관 등의 아동시설이 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시설과 동일 대지, 혹은 동일 건물에 함께 축조되거나 병설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시설을 정비하는데 복수의 시설을 합축(合築), 혹은 병설하거나 기존시설의 일부를 타 시설로 전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시설 중 어린이집⁵⁾과 노인데이서비스센터, 아동관과 특별양호노인홈 등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과 고령자용 시설이 합축, 병설된 것을 「유로복합시설(幼老複合施設)」, 혹은 「유로공생시설(幼老共生施設)」⁶⁾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복지시설 건립 시 신규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복수의 시설을 동시에 정비하던지 기존시설의 증축이나 재건축 등의 시기에 맞추어 복수의 시설기능을 집어넣는 「복합복지시설」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설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재정적인 사정에 기인한다. 특히 도심부를 중심으로 토지와 기존시설을 유효활용해서 시설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유복합시설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이와 같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과 함께,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복지수요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아수의 감소로 시설의 축소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에 국가 등이 지원하여 시설의 일부를 데이서비스센터 등의 고령자 시설로 리노베이션하는 사례가 90년대 이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저출산화로 초등학교와 보육시설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2008년 7월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유복합시설의 도입은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2008. 12

4) <幼老總合ケア研究會編, 『幼老總合ケア:“高齢者福祉”と“子育て”をつなぐケアの實踐と相乗効果』, 黎明書房, 2006. 6>, 인터뷰 검색 등에서 참고하였다.

5) 일본에서는 호이쿠엔(保育園)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아원시설을 보육원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혼동을 피해 어린이집으로 명기하였다.

6) 엑스나레지움, 『シルバー事業企畫マニュアル 2005-06』: 幼老共生施設とはなにか, 엑스나레지움, p.37

또한 노유복합시설은 노말리제이션(Normalization) 이념에 근거한 이세대 교류, 즉 세대간 교류를 촉진하는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⁷⁾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복합시설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2 세대간 교류의 배경 및 개념

고도성장기에 들어서 도시화, 과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가족형태는 핵가족화, 단독세대화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지역에서의 인간관계는 점차 희박해졌다.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의 인간과 교류할 기회가 감소하였고, 세대간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발달의 기회와 다양한 시점에서 자기 장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핵가족 세대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바쁜 업무와 가족·지역에서의 육아에 대한 관계성 감소 등으로 부모의 육아불안이 증대하는 가운데, 세대간 교류와 협동이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되었다⁸⁾.

이카리 코이치(碓 浩一)⁹⁾는 아이들의 성장장애, 희박해지는 세대간 관계, 지역사회와 가족관계의 희박화, 지역사회에서의 고령자의 고립, 학대아동으로 상징되는 육아곤란, 가족 파괴 등의 현상이 산업사회가 가져온 핵가족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핵가족화의 폐해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풍부한 양육 환경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과 노인이 만나서 서로 풍부한 관계를 갖는 생활을 이미지한 「노유공생」이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을 지역의 핵으로 하여 영유아기로부터 아이와 노인이 생활의 장을 공유하는 새로운 지역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도시화, 산업화가 가져온 핵가족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의 장점을 현재의 사회적인 시스템 내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것이 「세대간 교류」라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 아이와 노인이 접점을 갖는 장을 제공하자고 한 것이다.

세대간 교류의 의미는 '세대가 다른 사람이 상호 교류하여 서로의 생활문화와 가치관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¹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대간

교류에 대해 쿠사노 아즈코(草野篤子)는 '어린이, 청년, 장년층이 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내어 놓아, 자기 자신의 향상과 자기 주위의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지역조성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그 하나하나가 활동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¹¹⁾. 또한 미국에서는 청소년과 노인과의 의도적, 사회 정책적 그리고 교육적 동기부여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1960년대 중반에 「인터제너레이션(intergeneration)」이란 개념이 사용되었다. 샐리 뉴먼(Sally Newman)은 인터제너레이션의 개념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여 상부상조하는 것, 노인이 습득한 지혜와 예지, 사물에 대한 생각과 해석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¹²⁾ 즉, 세대간 교류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 층과 노인 상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든 세대가 이익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3 세대간 교류의 효과와 필요성

핵가족화에 따라 조부모와 접할 기회가 적어진 현대의 유아는 이전과 같이 조부모 기능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었던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체험을 노인과의 교류에 의해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인과의 교류가 실제 조부모와 접하는 것에 가까운 경험이 가능하여 정신적인 평안을 주는 장으로서, 또한 문화가 전해지는 장, 사회활동의 미니체험이 가능한 장으로서 공헌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가능성도 보인다¹³⁾. 즉 세대간 교류에 의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 폭 넓은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풍부한 정서를 키울 수 있다.

또한 노인 세대에게는 심신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삶의 보람을 주고 지역사회와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서는 노인에게 고용기회 창출과 사회참가 촉진의 면에서 효과가 있으며 보육시설의 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복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¹⁴⁾. 한편,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게도 육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인

7) 北村安樹子, 「幼老複合施設における異世代交流の取り組み-福祉社会における幼老共生ケアの可能性」, Life Design REPORT, 2003. 8, pp.4-15

8) 木林身江子, 「高齢者ケアにおける世代間交流の現状」, 静岡縣立大學短期大學部 研究紀要 第19号, 2005. 1, pp.1-13

9) 碓 浩一, 「幼老共生社会の提案」, 日本生活体験学習學會誌 第2号, 2002, pp.25-33

10) 谷川松芳, 世代間交流と生涯学習, 生涯学習研究e事典, <http://ejiten.javea.or.jp>, 2006. 1

11) 草野篤子, 秋山博介編, 『現代のエスプリ No.444 インタージェネレーション: コミュニティを育てる世代間交流』, 至文堂, 2004. 6, p.5

12) Ibid, p.34

13) 關戸啓子, 「複合型施設における高齢者とのふれあいが幼児にもたらす教育的意義」, 日本家庭學會誌 Vol. 53 No.7, 2002, pp.649-657

14) 北村安樹子, 「シニア・シルバー層の世代間交流の實態と意識」, Life Design REPORT, 2004. 9, pp.24-31

간관계를 확충시켜 지역통합, 지역 활성화, 문화·역사의 계승 등에 기여할 수 있다¹⁵⁾.

핵가족화에 의한 폐해 등을 줄이기 위해 노인케어 안에 우선 아이 세대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세대간 교류의 시도가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이 함께 병설된 노유복합시설이, 설치·운영비의 절감이란 경제적인 이유 외에 오늘날 사라져가는 세대간 교류의 장이 되어 새로운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4세대간 교류의 종류

노유복합시설에서 노인과 유아들의 세대간 교류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크게 직접교류와 간접교류로 나눌 수 있다. 즉 노인과 유아들이 직접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교류를 직접교류라 할 수 있고, 간접교류는 문이나 창 등을 사이에 두고 소리가 들리거나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노유복합시설에서의 연구결과¹⁶⁾에 의하면, 조사대상 노인의 43%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기운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각이나 청각만의 일방적인 접촉도 세대간 교류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나 상황 등에 따라 직접교류를 분류하면, 기획교류와 자주적 교류로 나눌 수 있다. 기획교류는 직원이 중심이 되어 교류의 기회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며, 자주적 교류는 누구의 도움 없이 노인과 유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행하는 교류이다. 또한 자주적 교류에는 노인과 유아의 우연한 만남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교류와 노인과 유아의 능동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교류가 있다.

보육시설과 노인시설이 함께 위치한 국내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세대간 교류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두 시설은 함께 연간 평균 3가지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연간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히 월간, 혹은 주간 단위로 세대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현재 다양한 노유복합시설 중 대부분의 시설이 연 단위로 계절단위, 그리고 오락적인 행사에 의한 교류에 그치고 있어 노인이 갖는 다양한 힘이

만드시 살려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노인과 아이들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교류의 진행방법과 그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도 모색상태이다¹⁸⁾. 하지만 노인과 아이들의 상호간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효과에 주목하여 「유로통합케어」라고 불리는 일부 선진 사례에 의한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세대간 교류의 분류

교류종류 ¹⁹⁾		교류내용
직접 교류	기획 교류	행사교류 생일잔치, 계절 행사(설날, 추석, 단오, 크리스마스 등), 운동회, 각종 발표회 등
	공동활동 교류	합창, 악기연주, 그림 그리기 등의 예술 활동 / 수공예, 공작, 요리 등의 창작활동 / 게임, 전통 놀이 등의 레크리에이션 / 체조, 기능회복훈련을 겸한 가벼운 운동
	식사교류	함께 식사하기, 간식 먹기
	거실방문 교류	노인이 머무는 방을 아이가 찾아가기
	육아지원 형 교류	노인이 아이돌보기를 거들기 / 노인이 아이의 보호자와 교류하기
	자주 적 교류	우발교류 만나서 인사하기 / 손 흔들기 / 껴안기
	자발교류 찾아가 놀기 / 이야기하기	
간접교류		바라보기 / 소리듣기

3. 노유복합시설 세대간 교류의 현황

일본 노유복합시설의 시설구성 및 세대간 교류에 대한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방문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조사대상 시설의 개요

시설명		위치	개관 년도	건물 규모	설립 경위	
시설명 ²⁰⁾	보육·아동시설 노인시설					
1	플라자 아카사카 난데모	아카사카 어린이 중고생 플라자(아 동관) 특별양호노인홈 상상 아카사카	동경도 미나토 구	2003	지상4층 지하1층	폐교된 소학교 를 리 노베이 션
2	(카마타)	카마타 아동관 특별양호노인홈 카마타	동경도 오오타 구	1995	지상4층 지하1층	동시 건 립
3	(타케노 우치와)	타케노우치 어린 이집	카나가 와현	2000	지상3층	동시 건 립

15) 木林身江子, 「高齢者ケアにおける世代間交流の現状」、静岡縣立大學短期大學部 研究紀要第19号, 2005. pp.1-13

16) 小山展宏 他(2001), 「高齢者複合施設に関する研究-その1・首都圏における児童と高齢者との複合施設にみられる交流の實体」、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概要集(關東) pp.117-118

17) 박혜선, 박영기(2008), 「종합사회복지관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권 9호, 2008. 9, pp.133-143

18) 木林身江子(2005), op. cit.

19) <末田芳輝 他(2001), 「相互交流における交流タイプの特性と評価」,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概要集(關東) pp.109-110>, <エクスマレッジムック, op. cit., p.38> 등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20) ()로 표시된 시설명은 분석을 위해 임의로 붙인 것이다.

	히가시 후치노베	히가시 후치노베 데이서비스센터	사가미하라시			
4	(후치노베와 유유)	후치노베 어린이집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1979 / 1995	지상2층 + 지상3층	후에 데이와 야간보육설
		유유 데이서비스센터				
5	오백나한의 집	아동 데이서비스센터 비밀기지(지적장애아)	카나가와현 오다와라시	2007	지상2층	동시 건립
		HSA 데이서비스센터 메다카학교 오백나한				
6	코토인	에도가와 어린이집	동경도 에도가와구	1987	지상4층 지하1층	후에 특양과를 부설
		양호노인홈 코토인, 특별양호노인홈 리버사이드 그린				
7	오리나스 후쿠로노 모리	도엔 사쿠라어린이집	동경도 이케부쿠로구	2005	지상22층 지하1층 (상부 주거시설)	폐교된 소학교 부지에 동시 건립
		특별양호노인홈 케이십엔, 개호노인보건시설 안주				
8	(덴마크 인과 미유키)	하라마치 미유키 어린이집	동경도 신주쿠구	2004 / 2003	지상3층 지하1층	폐교된 소학교 부지에 동시 건립
		개호노인보건시설 덴마크 인 신주쿠				
9	시바우라 아일랜드	어린이원(어린이집)	동경도 미나토구	2007	지상4층	동시 건립
		아동 고평차 교류 플라자(아동관, 노인공간)				
10	청유의 집	우라라 어린이집 특별양호노인홈 스즈우라홈	동경도 가츠시카구	1998	지상5층 지하1층	동시 건립

3.1 노유복합시설을 구성하는 시설의 종류

노유복합시설을 구성하는 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동시설로는 어린이집, 아동관, 아동 데이서비스센터가 있고, 노인시설로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노인데이서비스센터 등이 있다. 특별양호노인홈과 노인보건시설은 거의 모든 시설이 데이서비스센터(혹은 데이케어센터)를 부설하고 있으므로 1개 사례(시바우라 아일랜드) 외에 모든 시설에 노인데이서비스센터가 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관 보다는 어린이집이 복합된 경우가 많았으며, 데이서비스센터가 부설된 특별양호노인홈과 어린이집과의 복합이 사례의 반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가장 일반적인 노유복합시설의 형태는 어린이집과 특별양호노인홈과의 복합이라고 할 수 있다.

3.2 시설건립의 배경

노유복합시설이 지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두 시설이 함께 건립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후치노

베와 유유」의 경우 데이서비스센터와 야간어린이집으로 이루어진 3층건물을 후에 증축하여 어린이집과 연결하였다. 또한 「코토인」은 다른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던 양호노인홈과 어린이집을 1987년 현 부지에 신축하고 특별양호노인홈과 데이서비스센터를 부설하여 복합시설이 되었다. 「플라자 아카사카 난데모」는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노유복합시설로 리노베이션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오리나스 후쿠로노 모리」와 「덴마크 인과 미유키」의 경우는 모두 폐교된 소학교 부지에 건립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동경이라는 대도시에서는 폐교된 소학교 부지에 신축하거나 혹은 기존시설을 리노베이션하여 노유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3.3 세대간 교류를 위한 시설 복합의 요건

조사대상 노유복합시설의 세대간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양호노인홈의 노인들은 대부분 중증의 치매와 건강상태로, 그 정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심해져 실제 교류활동이 어렵다고 한다. 아이들과 상호교류가 가능한 노인들은 대부분 데이서비스센터나 양호노인홈의 경중이거나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다. 따라서 특별양호노인홈과 같이 중증의 노인들이 많은 시설과 복합화할 경우에는 간접교류 즉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배치 및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관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교실이 중심을 이루므로 오후 늦은 시간만 활동이 가능하며, 아동관과 복합된 시설의 경우 교류활동에 시간적 제약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데이서비스센터는 오후에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스케줄이 빡빡하고 아이들이 아동관을 이용할 시간에는 이미 퇴소할 준비를 하게 되므로 교류 시간을 갖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관 보다는 어린이집이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에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타케노우치 어린이집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노인과 세대간 교류의 경험이 있는 아이의 경우, 소학교에 진학하여 지역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 할 때 모둠의 중심이 되어 기획을 한다든지 노인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노인과 생활의 장을 공유하게 되면 세대간 교류의 효과가 더 크므로 노인시설과 복합되는 아동시설은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4. 노유복합시설의 평면유형 분석

4.1. 출입구 위치와 공유공간에 의한 분류

노유복합시설 내에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이 배치된 형태를 출입구 위치와 공유공간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첫째, 각 시설이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두 시설이 교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가진 경우, 둘째는 동일출입구와 공유공간을 가진 경우, 셋째

는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고 연결통로에 의해 연결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이 가장 세대간 교류에 대한 설계의도가 강하게 인지되는 형태이고, 세 번째 유형은 대부분 세대간 교류에 대한 설계의도 없이 만들어졌으나 후에 교류를 위한 편의성을 위해 연결통로가 추가된 경우이다.

첫 번째 유형은 「코토인」이 대표적인 사례로 1층 현관 홀 앞에 어린이집 유희실과 노인시설의 기능회복 훈련실이 직접 면하여 현관홀, 기능회복훈련실, 식당에서 유희실과 보육실의 모습이 보이도록 배치된 경우이다. 유희실과 기능회복훈련실의 경계는 필요시에는 커튼으로 가릴 수 있으나 원아의 오후 낮잠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시 개방되어 있다. 이것은 각 시설 공간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선택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한 쪽 시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두 시설이 다른 층에 위치하여 동선분리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출입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서는 공유공간이 있더라도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례인 「후치노베와 유유」는 기존에 있던 2층의 어린이집 건물에 데이서비스센터와 야간어린이집으로 구성된 3층의 복합시설을 증축하였는데, 1층에 두 시설 간 연결통로를 가지며, 2층에는 베란다로 통하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 노인이 데이서비스센터 입구로 연결되는 1층의 연결통로를 지나가면서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카마타」는 1995년 아동관, 특별양호노인홈, 실버피아(고령자주택)의 복합시설로 신축되었는데 그 중 1층과 2층의 일부에 아동관이 위치하며, 각시설의 입구는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 아동관과 특양은 2층 베란다를 통해서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개소 후 필요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직원입회 하에 상호교류시만 개방된다.



그림 4. 코토인 1층의 공유 교류공간



그림 5. 후치노베와 유유의 2층 연결통로

4.2. 두 시설의 위치와 연결 형태에 따른 분류

노유복합시설은 두 시설이 위치상 어떻게 접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면, 동일건물 내와 동일대지 내의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동일건물

내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일체적, 복합적으로 계획된 형태이며, 후자는 동일대지 내에 있으나 각각의 시설 기능이 독립된 건물 형태로 나뉘어져 있어 분동형이라 명명할 수 있다. 동일건물 내의 경우 <표 4>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복수의 시설기능이 같은 건물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병렬형, 적층형, 혼재형 등이 있다.

한편 동일대지 내의 경우는 각각의 시설을 잇는 연결통로의 유무에 의해서 시설의 독립성이 달라지는데, 연결통로가 있는 분동형 1과 연결통로가 없는 분동형 2로 나누어진다.

표 3. 출입구 위치와 공유공간 여부에 따른 노유복합시설의 평면분류

구분	별도 출입구 + 공유공간	동일 출입구 + 공유공간	별도 출입구 + 연결통로
평면 유형			
특징	-세대간 교류에 대한 설계의도 강함 -각 시설의 고유기능 유지하면서 선택적 교류 가능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에 효과적	-세대간 교류에 대한 설계의도 약함 -동선의 교차로 접촉기회 많음 -한쪽시설이 상대적으로 규모 작음 -적층형의 층별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세대간 교류에 대한 설계의도 없음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추후 연결통로가 만들어짐
사례	코토인, 타케노우치와 히가시 후치노베, 청유의 집, 플라자 아카사카 난테모	시바우라 아일랜드, 오백나한의 집	카마타, 후치노베와 유유, 오리나스 후쿠로노모리

표 4. 두 시설의 위치와 연결형태에 따른 노유복합시설의 분류

구분	병렬형	적층형	혼재형 1	혼재형 2
동일 건물 내				
동일 대지 내	분동형 1(연결통로)		분동형 2	

자료: 北村安樹子(2003), 「幼老複合施設における異世代交流の取り組み-福祉社會における幼老共生ケアの可能性」, Life Design REPORT, p6을 참고로 필자작성

다음의 <표 5>는 각 사례들을 <표 3>의 분류형식에 의해서 구분하여 각각의 평면형과 두 시설이 접하는 형태, 그리고 세대간 교류여부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시설은 혼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병렬형이 1개소, 별도형이 1개소였으며 적층형은 없었다.

표 5. 조사대상 시설의 분석내용

구분	사례명	평면형	두시설이 접하는 형태	세대간 교류여부
별도 출입구 + 교류공간 노유복합의도 강함	코토인		혼재형1	교류 많음 (기획 교류 적극적)
	플라자 아카사카 난테모		혼재형1	교류 많음 (기획 교류 있음)
	타케노우치와 히가시후치노베		혼재형2	교류 많음 (기획 교류 있음)
	청유의 집		혼재형1	교류 있음
	덴마크 인신주쿠와 미유키		혼재형1	교류 없음 (설계의 도 지나, 기획 교류 없 폐쇄적)
	동일 출입구 + 교류공간 노유복합의도 있으나 한쪽시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소외	시바우라 아일랜드		혼재형2
별도 출입구 + 연결통로	오백나한의 집		혼재형1	교류 없음 (지적 장애아 시설)
	카마타		병렬형	교류 있음 (기획 교류 있음)

노유복합의도 약하나 교류필요에 의해 연결	후치노베와 유유		별동형 (연결통로)	교류 많음 (기획 교류 있고 개방적)
	오리나스 후쿠로노 모리		혼재형1	교류 있음 (기획 교류 있으나 폐쇄적)

5. 세대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건축환경

5.1. 세대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계획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으며 실제 활발한 세대간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코토인」에서는 현관홀, 통로, 기능회복훈련실 모두가 어린이집의 유희실에 직접 면해 있어 출입과 혼련 시에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곤 한다고 한다. 또한 적극적인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교류활동이 정착이 된 「후치노베와 유유」의 경우에서도 테이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에 등원할 때 혹은 귀가할 때 연락통로와 입구를 지나가면서 원아들과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넨다고 한다. 이것으로 볼 때 노인시설의 기능회복훈련실, 식당 등의 공간에서 보육시설의 유희실이나 마당, 혹은 입구에서 전용공간까지의 통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치계획이 세대간 교류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사례 중 하나인 「타케노우치와 히가시후치노베」에서와 같이 양 시설의 경계에 설치되는 문은 서로의 기척을 감지할 수 있도록 격자 형태로 만드는 것이 유효하다. 이 문은 직원과 교류가 허용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두 시설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시설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고 있다. 또한 이 시설은 중심부에 노인들의 보행 훈련 및 산보가 가능하도록 연결통로가 이어져 있다. 이것은 공용공간을 통해서 노인과 유아가 서로 안면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건축적 장치가 되며 이를 통해 두 시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노유복합시설에서 세대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적 장치를 도입하고 교류를 염두에 둔 배치와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즉, 두 시설이 교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계획하고 노인시설의 주 생활공간과 동선범위 내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도록 실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들의 동선과 아이들의 동선이 겹치도록 계획하면 우발교류에 의해 자연스러운 교류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3. 보육원 마당이 잘 보이는 코토인 입구



그림 4. 보육원마당이 내다 보이는 유유 데이서비스센터의 데이룸



그림 5. 후치노베와 유유의 1층 연결통로



그림 6. 연결통로에서의 후치노베 아이들



그림 7. 타케노우치 보육원과 데이서비스센터의 1층 연결문



그림 8. 보행연습이 가능한 타케노우치와 히가시 후치노베의 공용통로

5.2. 세대간 교류와 지역복지

조사대상 노유복합시설에서는 계획된 세대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공동활동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별한 날의 행사교류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상 세대간 프로그램의 시행여부는 노유복합건물로서의 설계 의도나 건축적 장치의 유무에 전적으로 의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각 시설 운영자의 가치관과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과의 자주적 교류가 직원들에 의한 기획교류에 의해 더욱 활성화 되듯이, 노유복합시설에서의 다양한 건축적 배려가 세대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노유 양세대의 직접적인 교류와 함께 시각, 청각을 통한 간접교류, 나아가서는 이용자가 가족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코토인」에서는 보육원아가 퇴원하는 시간대가 되면 양호노인홈의 노인들이 내려와서 부모들이 데리러 오기까지 아이들의 상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아의 부모들과 친해진다고 한다. 또한 시설에서 친해진 노인들과 동네 수퍼 등에서 만나면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를 통해 노인, 부모, 아이들

이 서로 알게 되는 사례 등은 거의 모든 시설에서 보고되는 세대간 교류의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되는 점이다. 이러한 소프트, 하드웨어 면에서 세대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운영자 및 직원, 설계자의 노력을 통해 노유복합시설이 지역복지로 확산할 수 있는 중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세대간 교류와 노유복합시설의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일본 노유복합시설의 평면을 분석하고 세대간 교류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노유복합시설 계획 시 세대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배치 및 교류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노유복합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노유복합시설의 형태는 어린이집과 특별양호노인홈과의 복합이다. 또한 동경 등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폐교된 소학교 부지에 노유복합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시설을 리노베이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세대간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경증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유리하며, 교류활동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어린이집이 아동관 보다 유리하다. 이것은 더 이른 시기에 노인과의 교류를 경험하는 것이 세대간 교류의 효과가 크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3) 출입구 위치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유공간 여부에 따라 노유복합시설의 평면을 분류하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교류공간을 공유한 경우, 둘째는 동일출입구와 공유공간을 가진 경우, 셋째, 별도의 출입구와 연결통로를 가진 경우이다. 첫 번째가 가장 세대간 교류에 대한 설계의도가 강하며 세대간 교류에도 효과적이다.

4) 노인시설과 아동시설 두 시설이 위치상 어떻게 접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면, 동일건물 내외 동일대지 내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동일건물 내는 다시 병렬형, 적층형, 혼재형으로 나누어지며, 동일대지 내는 연결통로 유무에 따라 2가지 형태의 분동형으로 나누어진다. 조사대상시설은 혼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병렬형이 1개소, 분동형이 1개소였다.

5) 노유복합시설에서 세대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 및 배치계획은 첫째, 두 시설 이용자의 교류를 유도하고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설치한다. 둘째, 노인시설의 주생활 공간과 동선 범위 내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도록 시설 배치를 한다. 또한 노인들의 동선과 아이들의 동선이 겹치도록 계획하면 우발교류에 의해 자연스러운 교

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노인의 개호정도가 중증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아이들과 교류하기 힘들 때에는 노인의 생활공간 내에서 아이들의 활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실을 배치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복합복지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건립되는 시설의 수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특히 학교시설과의 복합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유희시설의 유효이용이란 물리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세대간 교류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최근 복지시설계획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 그리고 핵가족화에 의한 현대의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일본 사례를 통해서 조사·분석이 이루어졌다는 데 연구의 한계를 가지며 향후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국내 사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노유복합시설의 건축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참고문헌

1. 김석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과 시설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2. 박혜선, 오은진, 「일본 고령자복합시설과 데이서비스센터의 복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권 4호, 2007. 08, pp.62-71
3. 박혜선, 「노인복합시설 세대간 교류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
4. 박혜선, 박영기, 「종합사회복지관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권 9호, 2008. 9, pp.133-143
5. 오은진, 박혜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수요증가와 시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p.41-50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복합복지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2008. 12
7. 엑스나레지움, 『シルバー事業企畫マニュアル 2005-06』: 幼老共生施設とはなにか, 엑스나레지움
8. 草野篤子, 秋山博介編, 『現代のエスプリ No.444 インタージェネレーション: コミュニティを育てる世代間交流』, 至文堂, 2004. 6
9. 幼老總合ケア研究會編, 『幼老總合ケア: “高齢者福祉”と“子育て”をつなぐケアの實踐と相乗効果』, 黎明書房, 2006. 6

10. 北村安樹子, 「幼老複合施設における異世代交流の取り組み-福祉社會における幼老共生ケアの可能性」, Life Design REPORT, 2003. 8, pp.4-15
11. 北村安樹子, 「幼老複合施設における異世代交流の取り組み(2)-通所」, Life Design REPORT, 2005. 1, pp.4-15
12. 越知田優司 他, 「複合化による相互交流の實態と環境の及ぼす影響-ヒト・モノ・コトの相互浸透からみた高齢者・幼児施設の複合化に関する研究(その1)」,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概要集(關東), 1997. 9, pp.55-56,
13. 金谷知恵 他, 「幼老複合施設における相互交流の分流と特性-幼老複合施設における建築計畫に関する研究:その1」,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概要集(關東), 2006. 9, pp.151-152
14. 木林身江子, 「高齢者ケアにおける世代間交流の現状」, 静岡縣立大學短期大學部 研究紀要第19号, 2005, pp.1-13
15. 小山展宏 他, 「高齢者複合施設に関する研究-その1・首都圏における児童と高齢者との複合施設にみられる交流の實態」,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概要集(關東), 2001. 9, pp.117-118
16. 碓 浩一, 「幼老共生社會の提案」, 日本生活体験學習學會誌 第2号, 2002, pp.25-33
17. 末田芳輝 他, 「相互交流における交流タイプの特性と評価」,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概要集(關東), 2001. 9, pp.109-110

접수 : 2009년 06월 30일

1차 심사 완료 : 2009년 07월 20일

최종 수정본 접수 : 2009년 08월 14일

3인 익명 심사 필